

# 말씀의 샘

##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 <잠언 16장 1~3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현대 도시교회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계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말씀하시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또한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미지근한 교회, 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교회와 성도들은 바른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니다. 자기의 심각한 영적 진단에 대해 심도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실만을 말하고 아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창조주께서 하시는 진단은 정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라오디게아를 향한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진단하시며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분이 라오디게아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계 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마디로 너의 신앙은 미지근하여 마실 수 없는 물처럼 토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약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 금융과 각종 특산물이 풍성한 곳이었기에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 부유했고 아쉬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킬로미터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물을 끌어오고, 16킬로미터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끌어와서 물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오는 과정에 식거나 더워져서 미지근한 물이 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다, 뜨겁다,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늘 접하면서 와 닿았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차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겠고, 뜨거우면 목욕을 할 수 있었겠지만 미지근한 물은 아무 곳이나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식수로 먹으면 배탈, 토할 수밖에 없는 역겨운 물맛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를 제공해줄 수 있기에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갈망도 없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없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안 찾아도 당장 급한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잠시 뜨거워졌다가도 금방 나태해져서 그 상태가 오래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라오디게아는 핍박도 없었고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세속화된 넉넉한 도시교회의 전형적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설립하였고, 바울이 골로새교회와 함께 마음을 쏟아 관리했던 교회였습니다. 한때 치유, 은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하나님 은혜에 대해 식상해 저버렸고 불이 꺼진채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고 약 25년이 지난 뒤, 요한이 에베소감독으로 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온천을 통한 광물질로 인해 안약과 의술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믿노라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주님에 대한 필요성도 그다지 없고 그러다 보니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가난하고, 없고, 힘들 때는 그렇게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더니 부유해지고 세속화되면서 기도와 간절함과 눈물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불로 연단된 금처럼 연단의 기회를 오히려 만나는 것이 라오디게아의 영적상황을 벗어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연단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불이 붙고 열심히 회복되어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두란노 교회의 지체들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첫째는,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명과 믿음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나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교회 생활한다면 나도, 주님도 더불어 먹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모든 신앙에는 우리 영과 주님의 배부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로 더불어 드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더불어 먹는 음식의 재료는 주님이 가져오십니다. 말씀되신 주님이 친히 양식이 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주님께 먹여드리는 것이 더불어 먹는 것인데, 우리가 그 받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삶이 주님께 먹여드리는 음식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삶이 없으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받아먹는 양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드릴 때, 그제서야 주님은 배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메시야로 받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를 마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음식을 사러 다녀온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드실 것이 없어서 토하여 내칠만한 라오디게아의 그런 신앙 모습이 아니라 신령하고도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날마다 매순간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16년 9월 11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9. 18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창세기 31장 4~13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만을 거당하는 삶"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